

# 4세대 '나이스' 잇단 오류...일선학교 시험관리 '대혼선'

(교육행정정보서비스)

광주·전남도 접속 중 강제 로그아웃에 학생 명단 뒤죽박죽 섞여  
기말고사 문항정보표 유출 우려에 시험지 폐기 재시험 등 큰 혼란  
"2800억 들여 새 시스템 만들었다더니 오히려 허술" 교사들 불만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가 4세대로 교체되면서 각종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말고사 시기인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시험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웹서버 패치'(Webserver Patch) 등이 적용돼 강제 로그아웃 등의 오류 현상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체 13일차인 3일까지도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개통 직후 접속지연·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4세대 나이스가 안정적인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나이스'는 일선 교사들이 교육과정 시수, 학생 평가 등을 비롯해 복수상신, 연말정산까지 학교 행정 전체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시스템이다. 특히 시험기간이 되면 교사들은 시험문제와 정답, 성취기준 등이 담긴 문항정보표를 나이스에 올려 관리를 하게 된다. 나이스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새롭게 4세대로 교체가 완료된 후 서비스를 시작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교체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 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은 복부(연가·병가·조퇴 등), 초과근무 신청, 출장 신고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개통 후에도 오류가 발생해 시험기간을 앞둔 일선 교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경기지역 학교에서 10차례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문항정보표가 유출됐고, 나이스에 기말고사 문항정보표를 올린 광주·전남지역 학교들도 문항정보표 유출이 의심돼 시험 문제를 재출제하거나 문제 및 객관식 선택지의 순서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전남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3일 기말고사가 시작된 강진의 중학교에서는 출제된 문제의 순서를 바꿔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 정답이 포함된 문항정보표가 유출됐을 우려

가 있어 시험을 앞두고 미리 출력했던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구성해 다시 시험을 치른 것이다. 우려곡절 끝에 시험을 마무리한 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시험이 끝나고 성적일람표를 출력해 '이상없다'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한장으로 출력 가능했던 성적표가 출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서는 과목, 수행 평가 항목마다 일일이 성적표를 출력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연일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광주·전남 일선 학교 교사들은 3일 현재도 오류가 계속돼 시험관리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강제 로그아웃이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명단이 뒤죽박죽 섞이는 일이 계속됐다. 기말고사 성적처리를 하기 위해 학생 명단을 보던 교사 A(여·38)씨는 "2학년말을 맡아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데 우리반 학생의 이름이 아닌 학생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확인해 보니 이 학생은 3학년으로 담당교사도 명단에서 빠져 성적입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주시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B(여·61)교사는 "4세대 나이스로 교체된 직후 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 항목의 출력이 안되고 서버 안정화를 이유로 일부 기능은 사용조차 할 수 없다"며 "2800억 원이 들여서 새로 만든 시스템이라더니 오히려 더 허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폭염에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속출

땀받이 일하던 경찰관 사망도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장맛비가 잠시 멈추면서 폭염이 찾아온 광주·전남지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1명(광주 9명, 전남 12명)으로 집계됐다. 2일 오후 3시 30분께 보성군 조성면에서는 동료와 함께 땀받이 일하던 경찰관 A(59)씨가 숨졌다. A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30도 안팎의 더위 속 땀받이 일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께는 광주시 서구 마북동 극락교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B(67)씨가 쓰러져 고열과 의식장애 등의 증상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또 오후 5시 20분께는 화순을 한 운동장에서 50대 남성 C씨가 탈진 증세를 보여 119에 의해 이송됐다. B씨와 C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지난 1일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까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하루에만 광주지역에서 5명의 온열질환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되면서 기상청은 가능한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채용 알선 1억원 수수 의혹 서구 공무원노조원 2명 입건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인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고 금품을 받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청은 3일 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와 공무원직 직원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202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청은 이들이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9일 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채용이 이뤄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금품을 보낸 지인도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오르막길 경운기 뒤집혀 여수서 2명 사망·2명 부상

여수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경운기가 뒤집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여수시 돌산읍 농로에서 경운기를 오르던 경운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81)씨와 아내 B(79)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적재함에 타고 있던 C(여·75)씨와 D(여·80)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인근 마을에 물건을 구매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경운기가 뒤집히면서 비탈길로 떨어져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사가 급한 도로에서 운전미숙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89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정부, 대위변제 거부 4명 배상금 법원 공탁에 시민모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 나섰다

시민모금운동 동참 호소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3자 대위변제'안을 거부한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자(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승소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의 안을 수용했지만, 양금액 할

머니와 이준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3일 개시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것으로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같은 날 시민모임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는 4명을 위한 자체적인 모금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모임을 포함한 89개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대위변제'안'을 거절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모금이 시작되자 지난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원 소장이 2000만원을 기부했고, 안성례(여·84) 오월어머니의집 초대 관장이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때처럼 이거라도 팔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가져왔다"며 금 배지(2문)를 전했다. 정부가 공탁 개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의 공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한 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zang@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만원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림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